

조선 후기 楸子島의 문화사

이종묵*

1. 서론
2. 具容과 許淮의 別墅
3. 李景奭의 글로 남은 風月亭
4. 金昌翁의 玄城別墅
5. 楸子島의 後事
6. 결론

<국문초록>

楸子島는 고려 말 韓宗愈의 별서가 있어 故事가 되었고 조선 초기 貞懿公主가 세종으로부터 하사받아 부마 安孟聃의 소유가 되면서 그림으로도 그려졌다. 이후 많은 문인들이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바 있거니와 16세기 후반 崔慶昌, 白光勳 등 최고의 시인들이 이웃한 奉恩寺를 오가면서 수많은 시를 지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17세기를 전후한 시기 具容과 許淮 등의 별서가 있어 李安訥, 權鐸 등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들이 노닐었고, 이를 이어 金昌翁과 許格 등이 별서를 두면서 저자도는 한강의 가장 이름난 명소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문화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공간인 저자도의 위치를 두고, 여러 연구서와 사진 등에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 생성된 모래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하는 저자도는 오늘날 삼성동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에 있었고 그곳에 舞童巖이라는 바위가 있어 17세기 무렵까지는 舞童島라고도 불렸다. 18세기 무렵 저자도는 무동도와 분리되어 인식되었으며 이때의 무동도는 잠실섬의 일부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무렵 저자도가 뚝섬 앞쪽의 섬으로 기록된 지도가 나타났고 근대의 기억 역시 대부분 그러하다. 또 20세기 초반의 지도에는 무동도가 삼성동에 있던 원래의 저자도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핵심어: 저자도, 무동도, 구룡, 김창흡, 백석성

1. 서론

사라진 한강의 섬 저자도는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전하는 鄭麟趾의 글에 따르면 흰 모래와 갈대숲이 있어 경관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한다. 또 『遺閑雜錄』에 따르면 沈守慶이 東湖讀書堂에서 賜暇讀書를 할 때 배를 타고 봉은사를 구경하고 돌아오다가 지은 시에서 “동호의 빼어난 경치는 모두들 알고 있지만, 저자도 앞은 더욱 절경이라네(東湖勝概衆人知 楮島前頭更絕奇)”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른 시기부터 저자도에는 명사들의 별서가 들어섰다. 고려 후기 韓宗愈가 이곳에 별장을 두고 술이 취하면 늘 일어나 춤을 추면서 楊花詞를 노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일러 楊花徒라 불렀다고도 한다. 조선에 들어서는 세종은 이 아름다운 섬을 딸 貞懿公主에게 하사하였다. 이에 따라 부마 延昌尉 安孟聃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안맹담의 아들 安貧世가 이 섬을 물려받고 몹시 좋아하여 화가를 시켜 그림으로 그리고 姜希孟에게 시를 부탁한 바 있다. 1433년 강희맹은 외조모를 따라 저자도에 갔는데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언덕을 뒤덮은 채 자옥한 안개에 잠겨 있으며 강물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고 적었다.¹⁾

1) 강희맹은 <楮島十詠>(12:7)을 지어 煙籠江水, 雲藏島舍, 竹塢清風, 松巖細雨, 梅窓皓月, 菜籬清香, 藥圃藜杖, 花園帶鋤, 苔磯獨釣, 漁船扣柁 등을 노래하였는데 바로 저자도의

이후에도 저자도에는 여러 名家의 별서가 들어섰다. 鄭曄이 광해군 연간 저자도에 우거한 바 있고 이때 沈之源도 함께 거처하면서 학문을 강마하였다.²⁾ 權貴의 별서도 여럿 있었다. 朴承宗의 아들이요 李爾瞻의 사위로 광해군 대에 권력을 농단한 朴自興의 정자가 있어 李植이 시를 지어 “한씨 재상 낚싯대 흔적 묵은 지 오랜데, 귀족들의 화려한 집이 갑자기 많아졌네(韓相漁竿迹久陳 豪家華屋忽叢榛)”라 한 바 있다.³⁾ 또 尹新之의 아내 貞惠翁主의 무덤을 저자도에 쓴 것을 보면⁴⁾ 그 역시 저자도와 인연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16세기 말부터 백여 년 동안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들이 지속적으로 저자도와 인연을 맺었다는 점이다. 具容과 許淮의 별서가 있어 權驪와 李安訥이 어울려 저자도가 한시의 산실이 되었고, 또 다음 세대 許格, 李景奭, 金昌翁, 李世百 등이 이곳에 거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저자도를 문학으로 빛내었다.

그런데 정작 이 저자도의 정체는 매우 혼란스럽다. 1922년 간행된 지도인 『경성도』에는 뚝섬 하류에 있는 섬으로 나타나 있으며 金正浩의 『대동여지도』나 『동여도』 등에는 아예 뚝섬까지 포함한 넓은 모래섬 전체를 저자도라 표기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사라진 이 斗毛浦의 저자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한다. 최근 이루어진 저자도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에서도 대부분 저자도의 위치를 두모포에 있는 것으로 적고 있다.⁵⁾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조선 초기 이래 문헌에 등장하는 저자도는 중랑천과 만나는 뚝섬 지역이 아니라 탄천이 한강과 만나는 봉은사 곁에 있었던 섬으로 기술되고 있다.⁶⁾ 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광주부읍

풍광과 부마의 풍류를 함께 말한 것이다. 김안로의 <資憲大夫知中樞府事安公墓碑銘并序>(21:415)에도 안빈세가 楸島漁隱로 자처하였다 한다.

2) 박세채, <議政府領議政沈公墓誌銘>(14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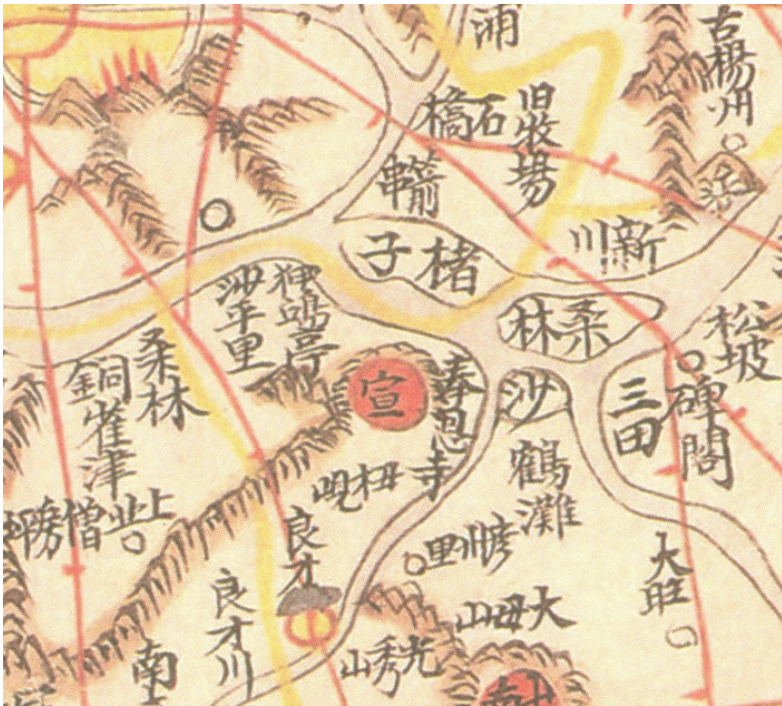
3) 이식, <登楸島朴自興亭基有感>(88:231).

4) 윤신지, <貞惠翁主行狀>(b20:379).

5) 윤진영의 「한강 명승의 백미, 선유도와 저자도」와 심경호의 「문학의 향기가 서린 섬, 문학의 향기로 남은 섬」 등이 그러하다. 한강의 섬에 대해서는 『한강의 섬』(마티, 2009)에 자세히 다룬다. 이 두 논문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6)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송과나무 서쪽에 있다고 하였고, 박은의 <廣津渡風雨甚惡, 力

지』에는 저자도를 설명하면서 舞童島와 같은 섬이라 하였는데, 무동도는 『경성도』에 잠실 건너三成리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본고는 조선 후기 저자도에 있던 문인의 별서에 대해 고찰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저자도의 위치와 문화사적 의미를 짚어보기로 한다.



[東輿圖 : 김정호가 19세기 중반에 그린 필사본 지도. 살곶이 다리 아래 저자도가 보이고 그 동쪽에 桑林이 보이는데 잠실섬이다. 鶴灘 위의 沙는 모래톱을 가리키는데 무동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棹泊三田渡, 晩來波濤稍安, 乘月下楮子島, 宿狎鷗亭下, 曉到漢江下岸>(21:28)을 보면 저자도가 삼전나루와 압구정 사이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具容과 許淮의 저자도 별서

17세기를 전후한 시기 李安訥, 權驪 등 당대 최고의 시인들이 마음이 맑고 곧았던 具容과 許淮의 별서를 찾아 아름다운 시를 지음으로써 저자도가 세상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구용(1569-1601)은 자가 大受이고 호를 楸島라 하였는데 그의 별서가 저자도에 있었기 때문이다.

구용은 저자도 서쪽에 주인을 잃고 황량한 채 남아 있는 安陽君의 정자를 찾은 적이 있다.⁷⁾ 安陽君 李祐은 성종의 셋째 아들로 연산군의 배다른 아우다. 성종으로부터 살곶이[箭串]의 목장까지 하사받았다 하니 그 전장이 동호 일대에 광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안양군의 부인이 綾川君 具壽永의 딸인데, 구용은 구수영의 고손자다. 구수영이 외가로부터 저자도의 별서를 받았고 그 일부가 구용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모양이다. 백부 具思顔도 중종의 딸 孝順公主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었으니 이 집안은 왕실과 관련이 깊었다고 하겠다.

구용은 그의 별서를 소박하게 그냥 草堂이라 하였다. 여행 중 价川의 細雨亭에 들러 쓴 시에서 “우리 집 초당은 저자도 물가에 있는데, 만 그루 대나무 뻗뻗한 것 내가 심은 것(吾家草堂楸島畔 萬竹森森曾手種)”이라 하였으니,⁸⁾ 구용이 직접 심은 대나무가 빼곡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구용은 저자도에 있던 舞童巖에 올라 이렇게 시를 지었다.

홀로 자라바위 위에 서 있노라니
 맑은 물결 파란 물굽이에 붙어 있네.
 음산한 봄기운 온통 비를 내릴 듯
 저녁 햇살은 만 겹의 산에 비친다.
 물새는 모래톱에서 우는데
 강바람은 취한 얼굴에 불어오네.
 서늘한 종소리 구름 너머에 들려오니

7) 구용, <安陽君亭子>(b16:252)에 “亂山無主屬誰家 寂寞荒庭日自斜 唯有牆頭桃李樹 年年解作一繁華”라 하였는데 “在楸島西”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8) 구용, <登細雨亭>(b16:219).

어딘가에 절간이 있나 보다.

獨立鰲頭上 晴波漲綠灣 春陰一邊雨 落照萬重山

水鳥鳴沙渚 江風入醉顏 寒鍾出雲外 何處有禪關

구용, <무동암에 올라서(登舞童巖)>(b16:248)

이 시를 두고 權鐸은 젊은 시절 저자도에서 노닐 때 지은 작품이라 하였다.⁹⁾ 그러니 이 시에서 이른 자라처럼 생긴 무동암은 저자도에 있던 바위가 분명하다.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소리는 봉은사에서 나온 것이다.

저자도는 이안눌과 권필 등 詩友와의 시회의 공간이었다. 특히 구용과 이안눌은 인척 관계로 맺어져 있다. 구용의 선대 인물 중에 具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연산군의 제사를 승계한 인물로 이안눌의 외조부이고, 후에 이안눌이 그로부터 연산군 제사와 함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바 있다. 구엄이 구수용의 손자이니, 이안눌은 구수용의 고손자 구용과는 인척간이기도 하다. 또 이안눌의 臺山別墅가 인접한 新川 건너 광나루에 있었기에 마포에 살던 권필과 함께 수시로 배를 타고 저자도를 찾았던 것이기도 하다. 구용은 저자도에서 이안눌과 노닐면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권필을 아쉬워하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წყш 마치고 버들 곁 바위에 배를 옮겨 묵고는

새로 지은 시 읊조리노라니 멍하니 돌아갈 것 잊었네.

마음은 고갯마루 한가한 구름처럼 고요한데

눈은 하늘가 날기에 지쳐 돌아가는 새를 보내노라.

대낮이라 물결 자취는 바위에 이빨처럼 남았는데

비 그친 뒤라 바람은 주렴의 빗방울 날리게 하네.

눈에 가득한 이 강산에서 내 장차 늙으리니

인간세상 30년 잘못 살아온 것 이제 알겠네.

釣罷移舟繫柳磯 新詩吟就澹忘歸

9) 권필, <舟行五絶>(75:75)에서 “余於二十年前, 與亡友具君容, 遊楮島, 君有句云, ‘春陰一邊雨, 落照萬重山’ 至今傳於世.”이라 하였다.

心如嶺上閑雲靜 目送天邊倦鳥飛
 日午潮痕生石齒 雨餘風力捲簾霏
 江山滿眼吾將老 方覺人間卅載非

구용, <저자도에서 노닐면서 자민이 여장을 그리워한 시에 차운하다(遊楸島, 次子敏憶汝章韻)>(b16:239)

구용은 훗날 龜城의 시골집에 내려가 있을 때 저자도에서 벗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면서 쓴 시에서 “지난 날 저자도에 있을 때, 일엽편주에 그윽한 흥이 많았지. 권석주와 이동악은 지기였으니, 술 취한 뒤 문득 길게 시를 읊조렸지(昔我在楸島 扁舟幽興深 權李是知己 醉後輒長吟)”라 한 대로,¹⁰⁾ 이들은 자주 저자도에 모여 시회를 즐긴 것이다.

구용은 저자도에 초당을 짓고 벗들과 이웃하여 살면서 노년을 보내고자 하였다. “저도의 남쪽에 시원찮은 전장이 있으니, 옷깃을 떨치고 농사지며 살리라(楸島之南有薄庄, 拂衣終當老於圃)”¹¹⁾라 하였으니 저자도 남쪽에 있던 초당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당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황량해졌다. 杜甫가 <同谷七歌>를 지어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였는데 구용은 이를 본떠 시를 지으면서 저자도의 초당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 이 노래의 앞부분에서 “내 태어난 때 어찌 아름다운 시절 아니었나, 반평생 전쟁 통에 떠돌이로 살아왔구나. 저자도의 초당도 무엇이 남았겠나, 병화에 타고남은 것 터밖에 없겠지.(我生我生胡不辰 半世流落干戈裡 楸島草堂亦何有 兵火燒殘餘舊址)”라 하였다.¹²⁾ 그의 초당은 사라지고 추억의 공간으로만 남은 것이다. 게다가 서른두 살 청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저자도와 관련한 구용의 삶은 벗들의 기록에 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구용이 젊은 시절 저자도를 중심으로 풍류를 즐긴 그룹 중에 許淮라는 사람이 있었다. 허희(1573-1637)는 본관이 陽川으로 조선 초의 학자 許琛의 후손이다. 자는 深源 혹은 巨源이며 호는 漁隱이라 하였다.¹³⁾ 그의

10) 구용, <龜城村舍>(b16:225).

11) 구용, <旅舍遇雨>(b16:216).

12) 구용, <六歌>(b16:214).

13) 김상현의 <進士許君墓誌銘并序>(77:514)에 이력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별서가 저자도 구용의 초당 바로 인근에 있었다.

내 평생 산수를 좋아하여
 한 칸 방을 저자도 곁에 두었지.
 강호와 성시는 길이 절로 먼 법
 적막하게 물고기와 짝이 되었지.
 자네와 우리 집 언덕 하나 사이에 있어
 지팡이에 신발 끌고 기탄없이 노닐었지.
 자네 집에 술 익으면 내가 가서 먹고
 우리 집에 내 한가하면 자네를 불렀지.(중략)
 봄 강 눈이 녹은 푸른 물결 백사장에 일렁이고
 쏘가리 살진 때라 꽃이 강 언덕에 가득하네.
 가을 서리 선릉과 정릉에 내려앉자
 강마을은 맑게 비단병풍 둘러친 듯.
 풍월은 한 푼 돈도 들지 않는 법
 강산은 삼공의 벼슬과 바꿀 것 있으랴(하략)
 我性平生愛山水 一室新開楮島畔
 雲林城市路自賒 寂寞來作魚蝦伴
 君家我屋隔一丘 杖屨相從固不憚
 君家酒熟我就飲 我屋身閑君輒喚(중략)
 春江雪消綠漲沙 錦鱖肥時花滿岸
 秋霜纔着二陵樹 水國晴開錦繡幔
 風月不用一錢買 江山肯與三公換(하략)
 구용, <허회와 이별하면서(留別許深源淮)>(b16:222)

저자도 남쪽에 있던 구용의 별서에서 언덕 하나 넘은 곳에 허회의 집이 있었다. 허회의 집에 술이 익으면 달려갔고 구용이 한가하게 혼자 있으면 허회를 불렀다. 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저자도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살았는데, 허회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떠나가야 하는 것을 안타

까워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

허희는 구용뿐만 아니라 이안눌, 권필 등도 절친한 사이였다. 이안눌과 권필도 여러 차례 허희의 집을 찾은 적이 있다. 아래 작품은 1596년 제작한 것으로 젊은 시절 이들 그룹의 풍류가 잘 드러난다.

그리워라 안동 권씨 술 취한 선비여
 일엽편주에 흥이 나서 달빛 아래 노닐었지.
 봉은사에는 꽃이 눈처럼 희게 피었고
 읍호정 앞엔 강물이 이끼처럼 파랬지.
 시골 사람과 두는 바둑 좋은 일이었고
 시골 아낙 석 잔 술이 다정도 하였지.
 6년 만에 다시 시 짓던 곳 이르니
 남녘 하늘 저 끝으로 어둑한 햇살 이르네.

憶與安東醉秀才 短舫乘興月中廻
 奉恩寺裏花如雪 挹灑亭前水似苔
 好事野人棋一局 多情村媪酒三杯
 六年重到題詩處 目斷南天暝色來

이안눌, <저자도 허거원의 집에서 권여장을 그리워하면서(楸島許巨源淮家, 有懷權汝章)>(78:538)

이안눌이 윤희의 집에서 바둑을 두고 술을 마시던 풍류가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다. 봉은사에 꽃구경도 가고 挹灑亭을 오르기도 하였다. 이 시에 등장하는 읍호정은 허씨 집안의 소유였다. 구용은 그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시로 적어 내걸었다.

작은 누각 동방에 가장 빼어난 풍광인데
 객과 함께 올라보니 사방 창이 흰하구나.
 한 장의 금빛 거울 푸른 하늘에 펼쳐져 있는 듯
 천 길의 옥으로 만든 백룡이 맑은 강에 누운 듯.

남한산성 새벽빛은 휘장으로 스미는데
 저자도 맑은 강물은 술항아리를 비추네.
 가을날 드넓은 동정호도 치위머리게나
 이곳의 맑은 새벽 풍경은 짝할 데 없으니.
 小樓形勝冠東邦 與客登臨洞八窓
 金鏡一奩開碧落 玉龍千丈臥滄江
 山城曉色侵羅幌 楮島晴波映酒缸
 除却洞庭秋萬頃 此間清景定無雙
 구용, <음호루에 쓰다(題挹灑樓)>(b16:233)

여기서 이른 음호루는 이안눌 시에 이른 음호정이다. 중국 최고의 명승인 동정호도 음호루에서 보이는 한강보다 못하다면서 이렇게 자랑하였다. 구용과 이안눌, 권필, 허회 등이 어울려 즐긴 저자도의 풍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허회의 아들 許格(1607-1690)도 대를 이어 저자도에 은거하면서 大明處士를 자처하였다. 허격은 자가 春長 호를 滄海라 하였는데 저자도에서 살다 그곳에 묻혔다. 부친의 벗 이안눌이 그의 스승이었다. 이안눌은 1630년 저자도에 살던 허격이 저자도의 별서에서 작은 배를 타고 술을 싣고 와서 그의 대산별서에 며칠 머물기도 하였다.¹⁴⁾

허격은 병자호란 일어나자 저자도를 떠나 경상도 풍기로 피란을 갔다. 인조가 청에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소백산에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출사를 포기하였다. 단양의 遼山 아래 은거하였지만 언사가 과격하여 평안도 선천으로 유배당하였다. 그 후 1672년 저자도로 돌아와 지냈다. 이 무렵 허격이 거처한 곳은 水明亭이었다. 杜甫가 <月>에서 이른 “새벽녘에 산이 달을 통하니, 얼마 남지 않은 밤에 물이 누가에 휘하다(四更山吐月 殘夜水明樓)”에서 따온 것으로 조선시대 마포 등 여러 곳에 같은 이름의 정자가 있었으니, 이 이름이 한 때 유행이었던 모양이다. 李海朝는

14) 이안눌, <許秀才格自楮島別廬, 乘小舟, 載酒而來, 留數日, 及至告歸, 風雨暴作, 終日不止, 仍不得行, 率題以示. 君曾問字於洪川謫居, 故首句云. 時崇禎庚午寒食前三日也>(78:324).

허격이 세상을 떠난 뒤 이태 뒤에 수명정을 찾아 그곳의 아름다움을 노래 하였는데 두모포 북쪽 유하정에서의 달 구경[流霞賞月], 강 남쪽 압구정 앞에 드리운 낚시대[狎鷗垂釣], 남한산성의 하얀 성가퀴[山城粉堞], 이촌동 부근의 사촌에 내리는 눈[沙村暮雪], 두모포에서 강을 건너 돌아오는 봉은사의 중[渡頭歸僧] 등이 수명정에서 구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광이라 하였다.

허격은 저자도에 잠시 우거한 金昌翁과도 친분이 있었기에 김창흡이 그의 수명정에 올라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새벽에 창해 노인을 만나
수명정을 걸어서 올랐네.
모래섬엔 높다란 창이 흰하고
구름 속 배 걸엔 노승이 파랑네.
고운 물고기는 넓은 데서 노니는데
맛난 술은 맑은 물결을 굽어보네.
동으로 가는 배 애석하여라
순풍은 그 언제나 멈출는지.

晨逢滄海叟 步上水明亭 沙嶼高懸白 雲帆古檣青
嘉魚依浩蕩 美酒壓清泠 顧惜東歸纜 樵風何以停

김창흡, <수명정에 올라서 창해 허격에게 주다(與許滄海格登水明亭)>(165:52)

1686년 김창흡은 저자도에 들어와 살았는데 허격과는 친분이 있어 함께 동호와 서호를 두루 유람한 바 있다. 이 무렵 허격은 잠시 양평에 갈 일이 있었던 듯하다. 조선시대 양평 일대에서 땀감을 실어 한양으로 배로 운송 하였는데 이때 부는 순풍을 樵風이라 불렀다. 떠나가는 허격을 만류하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순풍이 부는 것이 애석하다 한 것이다. 이 시를 보면 수명정은 높다란 곳에 위치해 있고 낙락장송이 솟아 있었으며 그 앞에 백사정이 펼쳐져 있었던 모양이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은 1690년 허격은 수명정 근처에 새로 지은 초

가로 거처를 옮겼는데 바로 그날 목욕재계를 하고는 “천지는 언제 끝장이 날는지, 無涯가 도리어 有涯일지니. 강마을 한 갑자 지내고 나니, 짧은 인생 봄날 지는 꽃보다 짧구나(天地幾時盡 無涯還有涯 江城一甲子 飄忽劇春花)”라는 시를 읊조리고 눈을 감았다.¹⁵⁾ 『莊子』에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데, 우리의 생각은 끝이 없다.(吾生也有涯而知也無涯)”는 말을 유언으로 하여 허망한 인생을 마쳤다. 그리고 저자도에 있는 그 조부의 무덤 곁에 묻혔다가 나중에 양평으로 이장되었다.

그래도 저자도에 있는 그의 별서는 후대에 오래 기억되었다. 安鼎福은 許格의 손자인 許塙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대대로 저자도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¹⁶⁾ 또 李德懋도 저자도에 있던 허격의 옛집을 찾은 감회를 시로 적은 바 있다.¹⁷⁾ 이로 보아 18-19세기에도 이 집안이 대대로 저자도에 있었고 또 세인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李景奭의 글로 남은 風月亭

저자도의 별서 중에는 그 주인의 이름은 희미하지만 아름다운 글이 있어 후세에 기억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그 아름다운 글을 지은 사람이 바로 李景奭이다. 이경석(1595-1671)은 자가 尙輔이고 호가 白軒 혹은 雙溪다. 1637년 <三田渡碑文>을 지었기에 삼전도에 그의 자취가 치욕스러운 역사로 남게 되었지만, 1650년 왜적을 방비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청나라 몰래 산성을 수리하는 등 국방력을 강화하려 하다가 청나라에서 이를 문제 삼자 차칭하여 義州의 白馬城에 위리안치된 충신이기도 하다.

이경석은 1651년 유배에서 풀려나왔다. 조정에서 벼슬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기에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강가에 떠돌게 되었는데 그가 잠시 머물던 곳이 저자도였다. 이경석은 젊은 시절 許樸이라는 사람과 막역한 사이였는데 그가 죽자 만사와 제문을 지어 애도한 바 있다. 허직은 바

15) 金鍾厚, <滄海處士許公行狀>(237:554).

16) 안정복, <次許丈鈞叟韻, 許丈名塙, 字仲厚, 滄海之孫, 世居楮島>(229:342).

17) 이덕무, <到楮子島許氏茅亭, 訪許滄海古居, 登百濟宮城, 有感>(257:44).

로 許格의 아우다. 허직은 자가 자 春容이고 호가 白石인데 이안눌과도 친분이 있었다. 저자도에 살면서 近水亭이라는 정자를 경영하였는데,¹⁸⁾ 형 허격의 아명정 인근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직은 朴灑, 이경석 등 당대 명사들과도 친분이 있었다. 이경석은 이들 형제와 모두 교분이 있었기에 저자도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경석은 허격과 어울려 聯句를 짓기도 하였다.

가을바람 부는 저자도
함께 무동대에 올랐네.(이경석)
수북한 강물은 흘렀다 굽이치는데
일엽편주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네.(허격)

푸른 산 살아서 날아오를 듯
흰 해는 또한 느릿느릿하구나.
도리어 이 천지 사이에 우리 외에
진정한 신선이 과연 어디에 있으랴?

秋風楸子島 同上舞童臺 白軒
積水流還曲 扁舟去復來 春長
青山欲飛動 白日亦遲回
宇宙還吾輩 眞仙安在哉 白軒

이경석, <허춘장 등 여러 사람들과 배를 타고 지은 연구(與許春長格諸君, 乘舟聯句)>(95:493)

이 무렵 이경석은 막 유배에서 풀려나 갈 데 없는 처량한 신세였지만 저자도의 무동암에 올라 아름다운 풍광에 절로 신선이 되었노라 자부하였다. 무동대는 앞서 본 무동암을 지칭한다.

이경석은 짧은 기간 저자도에 살면서 이 일대의 아름다운 풍광을 시에

18) 朴灑, <寄題許春容樓近水亭>(b25:50). 근수정은 마포에도 있었는데 그 주인이 太湖 洪元燮의 손자인 悠齋 洪鍾序이다. 아우 芍玉 洪鍾應은 恩暇亭이 廣湖 곧 東湖에 있었다. 恩暇亭은 후에 老春 李明應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이명응은 흥선대원군 李昉應의 從弟다.

담았다. 특히 저자도의 아름다운 정자 風月亭에 대한 명문을 남긴 것은 기억할 만하다.

내가 한강가에 살았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배를 끌고 물을 거슬러 가다가 저자도의 모래밭에 정박하였다. 한 걸음 한 걸음 벗 權正則의 정자로 걸어 올라가니, 여러 객들이 나를 따랐다. 주인이 술을 권하고 정자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에게 기문을 지어달라는 것이 선친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술잔을 든 채 사방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이 정자는 강과 산 위에 있으니, 蘇東坡가 말한 강 위의 시원한 바람과 산 속의 밝은 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이야말로 이 정자에서 평소 누리는 것이니, 이것으로 정자의 이름을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좋다고 하였다. 나는 다시 술 한 잔을 따라 들고 정자에 기대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멀리 남쪽으로 높다랗게 뻗은 봉우리들이 이어지는데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울창창한 곳이 宣陵과 靖陵이다. 두 왕릉 너머로 獻陵이 바라다 보인다. 가파른 봉우리가 포개어져 봉황새가 춤을 추는 듯 난새가 앉아 있는 듯한 곳이 바로 청계산이다. 곧장 동쪽으로 가면 남한산성이다. 파란 봉우리와 흰 성곽이 허공에 가로놓여 있다. 남한산성 동북쪽은 月溪와 渡迷津이다. 고개와 협곡이 마주 솟아 있는데 풀과 나무가 울창하다. 그 앞에 푸른 섬이 있으니, 바로 저자도라는 곳이다.

물길이 둘로 나뉘어 흐르면서 섬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다. 기암괴석이 사이사이에 솟고 흰 모래가 평평하게 깔려 있다. 높은 벼랑의 갈라진 바위틈에는 꽃이 피어 있기도 하고 단풍나무가 서 있기도 하다. 봄이면 붉게 타오르고 가을이면 빨갭게 물드니, 그 광경이 더욱 기이하다. 그 가운데 몇 개의 촌락이 있어 소나무 숲 사이로 어리비친다. 그 위쪽은 광나루이다. 들판과 취락이 눈길 닿는 끝까지 아득히 뻗어 있다. 그 아래쪽에는 淸潭이 있다. 물이 맑고 질펀하여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이 정자 앞에 밤낮으로 펼쳐지는 경관은 이리하다. 희미한 이내와 지는 노을이 반짝였다 스러지면 만 개의 골짜기와 천 개의 봉우리가 어디론가 갔다

가 돌아오는 듯하다. 여기에 하늘빛과 구름그림자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홀연 사라지는 가운데 어선과 상선이 홀로 떠 있거나 함께 지나가기도 한다. 사계절의 풍경이 무궁하여 이 정자의 흥취가 넉넉하다.

산은 겹겹으로 이곳에 모여들고, 물은 첩첩으로 이곳에 모여든다. 시원한 바람은 여기서 더욱 시원해지고 밝은 달은 여기서 더욱 밝아진다. 한 푼의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는 영원한 無盡藏이다. 이 강가에 있는 집이 십여 채인데 유독 이 정자에서만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니, 이 정자에 풍월정이라 이름이 참으로 잘 어울린다고 하겠다.

나는 이로 인하여 느낀 바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바람이 바람이고 달이 달인 줄만 알지 내가 간직한 바람과 달이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바람과 달은 밖에 있는데 내가 간직하였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답은 이러하다. 군자가 마음을 흰 눈처럼 맑게 하여 인욕이 깨끗이 사라지면 산뜻한 바람과 화창한 달빛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게 되리니, 밖에 있는 것이 필요 없다. 게다가 밖에 있는 바람과 달은 흐려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 없고 밤낮을 가릴 것 없이 산뜻하지 않은 때가 없고 화창하지 않은 날이 없다. 굳이 정자에서 내려다 볼 것도 없이 끝없는 풍광을 저절로 지니게 되니, 그 즐거움은 언어로 형용하기 어렵다.

아, 밖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지만, 안에 있는 것은 아는 사람이 드물다. 게다가 이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되겠는가? 권정칙은 흥금이 속되지 않고 훌륭한 자제를 두었기에 이 말을 해줄 만하다. 그러므로 이 때문에 기문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이 말까지 함께 일러준다.

이경석, <풍월정의 기문(風月亭記)>(96:243)

풍월정은 蘇東坡의 <赤壁賦>에서 이름을 따온 정자였다. 그곳에 오르면 宣陵과 靖陵, 獻陵 등 왕릉을 에워싼 울창한 숲이 바라보이는 가운데 청계산과 남한산성이 너울너울 춤을 추듯 다가왔다. 푸른 월계에서 흘러온 한강물이 널따란 동호를 지나 서호로 흘러가는 모습도 보였다. 하얀 모래

밭 도처에 기암괴석이 서 있는데 봄철이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나무가 붉게 타올랐다. 소동파가 말한 無盡藏의 섬이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더라도 저자도는 오늘날 광나루와 청담동 사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벼랑에 기암괴석까지 있는 섬이었다 하였으니 그것이 앞서 본 무동암이었을 것이다.

이경석보다 한 세대 뒤의 문인인 李簠가 1692년 이 일대를 유람하고 쓴 글에서 奉恩寺에서 “길을 꺾어 동으로 조그만 동산에 올랐더니 곧 강안이였다. 수십 리 강물의 수면이 모두 밭아래 보였다. 저자도가 더욱 가까워 마치 책상 앞에 둔 물건 같았다. 강안을 따라 십여 채의 가옥들이 즐비하게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중략) 호젓한데다 가운데가 오목하여 그윽한 구역을 이루는데 수십 채의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배를 타거나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며 대추나 조, 토란, 무 등을 생산하기도 한다.”라 한 바 있다.¹⁹⁾ 여기서도 봉은사 동쪽에 저자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풍월정의 주인은 權正則인데 누구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權尙夏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상하 집안의 선산이 저자도에 있어 자신의 아내와 조카인 權變의 아내 무덤을 이곳에 썼다. 이는 권상하의 증조부인 權靄의 별서가 여기 있었기 때문이다. 권주는 광해군의 난정을 보고 벼슬을 포기한 채 저자도로 들어와 인사를 끊고 살았기에 후대 기림을 받은 인물이다. 권주는 죽어 저자도에 묻혔고 그 아들 역시 같은 곳에 묻혔다. 권주의 유일한 손자가 權格(1620-1671)인데 자는 正叔, 호는 六有堂이라 하였다. 바로 권상하의 부친이다. 자를 짓는 원리를 생각할 때 권격은 正叔이라는 자 외에 正則이라는 자도 사용한 듯하지만 확인은 어렵다.

金安國의 『思齋撫言』에는 成夢井이 배를 타고 저자도를 지나면서 權順衡의 정자가 강가에 높이 솟아 있는데 주인이 없기에 “화려한 난간은 대개 빌 때가 많으니, 술을 끼고 와서 기대는 이가 주인이라네(朱欄大抵多空寂 携酒夾憑是主人)”라는 구절이 실려 있다. 저자도에 정자를 둔 권순형은 權克和의 손자이고 權臧의 아들이다. 권주와 권상하 등이 바로 권순형의 형 權曼衡의 후손이다. 권극화 등 조선 초기 인물의 묘소가 淸潭에 있었다

19) 이보, <漢江泛舟錄>(『景玉遺集』, 규장각 소장본).

고 하니 청담과 저자도 일대가 이들 안동 권씨의 땅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권상하와 조카 권섭 등 뛰어난 문인들이 있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자도의 이 풍월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고 이 집안에서조차 저자도의 기억은 잊혀져버린 듯하다.

4. 金昌翁의 楮子島 玄城別墅

17세기 후반 저자도의 새로운 주인은 金昌翁(1653-1722)이었다. 김창흡은 본관이 안동이고 자가 子益이며 호는 三淵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洛誦子라는 호도 사용하였다. 김창흡은 산수를 사랑하였기에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곳에 전장을 두었다. 27세에 철원 龍華村 三釜淵 폭포 곁에 살면서 호를 삼연이라 하였다. 부친 金壽恒은 도성을 벗어나 살고자 하는 김창흡을 위하여 아름다운 섬 저자도에 별서를 마련해주었다. 金壽恒도 이곳에 터를 정하고 물러나 살 계획을 하었는데 아들 김창흡이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정자를 지어 먼저 살게 한 것이다.

김창흡은 1686년 무렵부터 저자도를 출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강가의 배를 살지언정, 강가의 누각을 사지 않겠네. 누각 사서 한 자리에 앉지만, 배를 사면 멋대로 먼 곳까지 여행하니(寧買江上船 不買江畔樓 買樓坐一處 買船放遠遊)”라 하였으니²⁰⁾ 그곳에 집을 지을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로부터 몇 차례 더 저자도를 방문하다가 마침내 그곳에 새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무렵 김수항도 함께 저자도에 머물 뜻이 있어, 하루는 그곳의 정자에 올라 눈 구경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하여 “강과 산이 비록 맑고 호젓하지만, 세상의 도리가 나날이 험악해져가니 내가 아마도 오래 머물지는 못하겠다.”고 하였다.²¹⁾

김창흡은 1687년 8월 저자도의 玄城이라는 곳에 정자를 지었다. 이때 지은 상량문에서 김창흡은 부친이 잡아준, 천하에서 제일가는 아름다운 땅에 살게 된 즐거움을 두루 말한 다음, 저자도와 그 주변의 연역과 풍광을 낭만

20) 김창흡, <楮島往返>(165:51).

21) 金邁淳, <內傳 文康公府君>(294:535).

적으로 제시하였다.

능침의 울창한 숲에 기대니 왕릉의 산줄기에 용이 이를 듯,
공주의 긴 모래섬을 얻었으니 은하수에 봉황새가 노니는 듯.
온조왕의 성은 바위가 흰데, 남한산성의 누각은 노을이 붉다.
모래펄이 강 언덕에 떨어져 구비 도니 달빛 안은 자태를 바치고
배들이 섬 양쪽으로 치달리니 신선이 바람을 나누어 달리는 듯.
오이 심은 고운 밭은 빼곡하게 무성하여 비단이 펼쳐진 듯
그물 말리는 먼 마을은 가물가물 뻗어 있어 안개에 덮여 있네.
산이 포구를 베고 누워 있으니 물이 쪽빛으로 스며드는데
물결이 모래톱에 펼쳐져 있어 모래가 눈처럼 풍성하네.
김창흡, <저자도의 새집 상량문(楮島新居上樑文)>(165:542)

宜陵과 靖陵의 뒤쪽 야산을 등지고 있다 하였으니 김창흡이 이른 저자도는 탄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요, 그렇다면 <경성도>에서 이른 무동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또 공주가 얻은 모래섬이라 한 것은 貞懿公主가 세종으로부터 저자도를 하사받은 일을 가리키니, 김창흡이 이른 저자도가 조선 초기의 저자도와 같은 곳임도 확실하다. 김창흡은 무동도와 같은 섬을 가리키는 舞島를 배경으로도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 “한씨 재상 무도에 살았는데, 또한 五湖에서 은거한 이의 마음을 가졌지(韓相舞島間 倘亦五湖意)”라 하였으니,²²⁾ 무동도와 저자도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溫祚王의 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李德懋가 <峽舟記>에서 “저자도에는 백제 온조왕의 옛 성터가 있고 그 아래에는 許滄海가 옛날 살던 집이 있다.”고 하였고²³⁾ 1762년 지은 것으로 보이는 시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한 바 있다.

22) 김창흡, <女城雜詠>(165:57).

23) 이 자료는 간본 『雅亭遺稿』에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고전번역원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삿갓 쓰고 거닐다 보니 어느 새 저물녘
 범이 사는 숲에는 까마귀가 울며 날아다니네.
 푸른 잣나무 그늘 드리운 곳에 왕릉이 엄숙한데
 파란 등불이 달처럼 흰한 질간은 호젓하구나.
 유장한 강물은 주나라 높이던 처사의 절개요
 낮은 성은 촉나라 지키던 어린 왕의 마음일세.
 우연히 고인이 은거하던 집에 이르렀으니
 호박국 쌀밥을 마주하고 흥금을 털어 놓는다.

逍遙野笠夕陽臨 烏鵲飛鳴虎豹林
 翠栢留陰仙寢肅 青燈如月佛宮深
 江長處士尊周節 城古孱王據蜀心
 忽到高人棲隱宅 匏羹稻飯澹論襟

이덕무, <저자도 허씨의 초가 정자에 도착하여 허창해의 옛집을 방문하고
 백제의 궁성을 올라보니 느낌이 일었다(到楸子島許氏茅亭, 訪許滄
 海古居, 登百濟宮城, 有感)>(257:44)

선릉과 정릉이 있는 곳엔 숲이 빼곡하고 가까운 강기슭에는 봉은사의 등
 불이 보인다. 그곳에는 앞서 본 大明處士 許格의 집이 있었으며 인근에 오
 래된 백제의 성이 있었다. 이처럼 이덕무 역시 저자도에 허격의 집과 함께
 백제의 고성(古城)이 있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삼성동 봉은사 뒤편 수도
 산에 삼성동 토성이 있었는데 강남 개발 전까지 상부에 장대석이 남아 있
 었다고 하니 저자도가 삼성동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김창흡은 이 백제의 고성에 대해 여러 차례 시에서 증언하였다. 이 성을
 흰 돌로 되어 있는 白石城이라 불렀다. 일제 강점기의 <경성도>에 그려진
 무동도에는 성곽처럼 보이는 선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백석성을 가리키
 는 듯하다. 김창흡은 특히 許格이나 그 조카 許焜에게 준 시에서 거듭 백석
 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별서가 바로 백석성 아래 있었던
 듯하다. 허격에게 준 시에서 “짧은 머리카락 마음은 천 리를 달리는데, 백
 석성에서 노래를 부르노라(短髮心千里 行歌白石城)”라 하였으니 그의 집이

백석성 아래 있었음이 분명하고, 허홍의 집을 찾아 지은 시에서 “백석성은 차가운데 외로운 기러기 날아 지나고, 황국화에 술이 익었는데 큰 강은 유장하다(白石城寒孤鴈度 黃花酒熟大江長)”라 하고 또 “술잔 들어 산에 뿌려 한 번 장난을 부리니, 온조왕은 어느 날 중앙절에 잔치를 하리요(舉觶洒山聊一謔 溫王何日宴重陽)”라 하였으니 백석성이 온조왕의 유적임이 분명하다.²⁴⁾ 또 백석성에 올라 지은 시에서 “저물녘 자네 손잡고 거니는 곳, 오직 오래된 흰 바위 성이라네. 흰 바위 성 곁의 성황당은 세월이 아득한데, 넝쿨풀 덮인 오래된 바위 보았을 곁세. 장삿배 내린 닻이 성 아래 이어지는데, 배 한 척 훨훨 삼전나루로 올라간다네.(日暮携君手 惟古白石城 白石城隍年代緬 君看石古蔓草縈 商舟落碇城下連 一帆翩翩上三田)”라 한 바도 있다.²⁵⁾



[京城圖 : 1915년 측량하고 1925년 수정하여 1926년 인쇄한 것이다. 오늘날 탄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무동도가 있고 그 서쪽에 삼성리, 봉은사가, 그 동쪽에 부리도와 잠실리, 신천리, 삼전리 등이 보인다.]

24) 김창흡, <送許滄海>(165:53) ; <重陽日訪許雪峰烘, 飲于菊叢>(165:59). 이 시에서 浸靑亭이라는 이 집안의 정자가 있었을도 확인할 수 있다.

25) 김창흡, <登白石城>(166:265).

백석성과 함께 夫人祠라는 사당도 주목된다. 김창흡은 “백제가 예전 개국할 때, 그 부인의 사당이 세워졌다네(百濟曾開國 夫人自有祠)”라 하였으며²⁶⁾ 다른 작품에서도 여러 차례 이 사당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부인사는 온조왕의 어머니 召西奴의 사당으로 추정되는데²⁷⁾ 이때까지 저자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부인의 사당 북쪽 물가에 있는데, 백제 사람 없으니 누가 너를 사모하라(夫人古祠臨北渚 百濟人空誰慕汝)”라 한 것으로 보아,²⁸⁾ 이 부인사는 저자도 북쪽에 있었던 모양이다.

배를 띄워 노니는 이들이라면

그 누군들 이곳에서 물풀을 뜯으며 머물지 않으랴

七里灘처럼 물결이 잔잔하니 은자들이 자주 찾고

五湖처럼 드넓으니 유유자적한 이들이 머물렀겠네.

섬 곁으로 휘도는 물결을 보면 權輶이 배를 멈추던 일이 떠오르고,

꽃을 꺾어 물가에 서면 白光勳이 情人을 보내던 일이 생각한다.

옛정은 동으로 흐르는 강물에도 다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모래톱에 남아 있는 것만 같구나.

김창흡, <저자도의 새집 상량문(楸島新居上樑文)>(165:542)

김창흡은 權輶과 白光勳의 시로 빛난 저자도의 문화사도 언급하였다. 앞서 말한 대로 권필은 구용과 허희의 별서를 오가면서 많은 시를 지었는데 “거듭 저자도의 나그네 되어, 문득 광주에 배를 띄웠네(重爲楸子客 却泛廣陵舟)”라는 구절이나²⁹⁾ 또 봉은사를 출입할 때 저자도를 지나면서 많은 시를 지은 白光勳이 “춘삼월 강마을은 곳곳에 꽃이 피었는데, 술집의 푸른 깃발 술 자랑하느라 수북한 꽃 너머에 필력이네(三月江村處處花 靑旗誇酒出花多)”라 한 구절³⁰⁾을 떠올린 모양이다.³¹⁾ 이어 김창흡은 자신의 집과 그곳

26) 김창흡, <夫人祠>(165:53).

27) 許穆의 <東事>에 “漢山에 성곽을 쌓아 위례의 백성을 옮겨서 채우고 마침내 한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國母의 사당을 세우고 祭壇을 지어 天神과 地祇, 五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28) 김창흡, <漫詠>(165:59).

29) 권필, <舟中作>(75:28).

에서의 운치 있는 삶을 길게 자랑하였다.

집은 좁아도 거울은 따스하고 여름은 시원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물려드는 풍광은 치우침이 없어 밤낮으로 마주할 정취가 있다네.
 누각은 툭 튀어나와 달빛을 마주하고 문은 비뚤하여 강물을 좇는다네.
 베개 아래 굽실거리는 물결에 굽주림을 잊게 되고
 눈앞에 파닥거리는 물고기에 즐거움을 알게 된다네.
 높은 곳에 기대어 먼 곳을 조망하니 이 땅이 어찌 그림 같지 않으랴!
 하늘 끝의 새들이 강물에 잠기니 내 몸이 꿈속에 있는 듯 의아하네.
 사람이 없으면 빈 방에서 혼자 술을 따르고
 손님이 오면 나란히 들판과 언덕을 거닌다네.
 앵두 울타리에 구름이 몰려들어 포의의 한가한 즐거움을 누리고
 킁킁한 정원에 햇살이 가려져 고고한 관리가 너울너울 춤을 출 듯.
 굽은 낚시터에 버들을 옮겨 심어 낚시꾼의 배를 기다리고
 긴 언덕에 갈대를 심어 사람을 피하지 않는 물새를 부른다네.
 이곳은 내 타고난 성품을 즐겁게 하고 더욱이 강마을을 경륜할 수 있게 한다네.
 봄꽃이 필 때 쏘가리 살찌면 은자의 노래에 답을 하고
 가을물 불어 소가 보이지 않으면 莊子의 허황한 말을 부연해 본다네.
 호기는 침상에서도 드높기에 큰 노래를 하늘가에 날려 보내네.
 앞집과 뒷집이 물속에 질펀하여 輞川 너머 포구와 같은데
 작은 섬 큰 섬이 빠죽하니 봉래섬에서 신선 보는 것과 한가지라.
 밭 앞에는 여린 노 젓는 소리 한밤에 삐걱거리면 손님이 찾아오나 누워서 헤아리고
 수풀 끝에 범고 소리 새벽에 낭랑하면 스님이 참선에 들었나 앉아서 생각하네.
 아득히 정신이 허공으로 솟구치고 아스라이 마음이 풀어진다네.
 이렇게 살면 수련을 하지 않아도 장수할 것이니
 강과 바다 없어도 한가하단 말 믿지 못하겠네.

30) 백광훈, <楮子島北臺贈文仲吉>(47:120).

31) 그러나 문맥으로 보아 崔慶昌이 봉은사 승려에게 준 <贈性眞上人>(50:14)에서 “去歲維舟蕭寺雨 折花臨水送行人 山僧不管傷離別 閉戶無心又一春”라 한 구절을 김창흡이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행복하고 행복하여라, 즐거움이 어찌 끝이 있으랴.

김창흡, <저자도의 새집 상량문(楸島新居上樑文)>(165:542)

許筠의 『屠門大嚼』에 따르면 저자도에서 나는 앵두가 작은 밤만큼이나 크고 맛이 달다고 한다. 姜樸도 “집집마다 앵두나무 있어 저자도 모래톱인 줄 먼저 알겠네(戶戶櫻桃樹 先知楸子洲)”라 하였으니³²⁾ 앵두나무는 저자도의 상징이었던 모양이다. 이곳의 앵두를 임금에게 진상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또 앞서 본 대로 李簾의 <한강에 배를 띄우고(漢江泛舟錄)>에도 “마을에는 다른 나무는 없고 앵두만을 두루 심었기에 마을 이름도 앵두촌이라 부른다. 아마도 봄이 되어 꽃이 피면 눈같이 흰 꽃이 산에 가득할 것 같다.”라 한 바 있다. 또 김창흡이 “무동도의 어부와 상인 서른 집, 근래 부유하여 예전보다 낫다네. 손님 오면 섬 안의 풍광이 좋다 자랑하는데, 무동암의 기이한 모습이 용과 거북 닮았다나(舞島漁商三十戶 入來饒富勝前時 誇客島中風水好 舞巖奇樣似龍龜)라 하였으니,³³⁾ 당시 무동암이 있는 저자도에는 서른 호의 가구가 비교적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어 김창흡은 들보를 놓는 노래를 아래와 같이 지었다.

어기영차, 들보 동쪽에 떡을 던져라.

세 섬이 영롱하게 난간 앞에 늘어서는데
아득한 동호에 조그만 은자의 집이 있어
가벼운 배로 나날이 나무꾼을 좇노라.

어기영차, 들보 서쪽에 떡을 던져라.

구름 빼곡한 낮은 숲에 짙이 숨어 있는데
종소리 듣고 높은 다락 조용히 소제하고 앉으니
어부의 노랫가락에 소쩍새 우네.

어기영차, 들보 남쪽에 떡을 던져라.

지척의 현성은 쪽빛처럼 푸르네

32) 강박, <舟行前雜詠>(b70:104).

33) 김창흡, <漫詠>(165:59).

표연히 굽어보니 하늘이 강물에 비쳤기에
 높은 가지 기대어 읊조리다 푸른 강에 침을 흘린다.
 어기영차, 들보 북쪽에 떡을 던져라.
 흰 바위 낚시터 앞엔 물결이 기이한 빛인지라
 낚은 나루 탐스럽게 보며 긴 낚시 둘러매니
 먼 안개에 신천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일레라.
 어기영차, 들보 위쪽에 떡을 던져라.
 太虛를 집 삼고 구름을 휘장 삼고서
 四海의 여러 공들과 함께 하리니
 바람과 달빛 즐기며 방해꾼이 없겠네.
 어기영차, 들보 아래쪽에 떡을 던져라.
 밤낮으로 하늘 적시며 땅 가득 물이 쏟아 내리는데
 오가는 큰 배와 작은 배는 어찌 저리 바쁘가,
 사심 잇는 일이야 누각에 기댄 사람 뚫어질지.
 들보를 올린 후에 이렇게 살고 싶나니
 태평연월 유유자적하면서 갈대숲에서 늘 청춘을 누리게 하소서
 아름다운 난간과 창가에서 물을 바라보는 정신을 깨닫게 하소서
 한가한 신세로 바다의 신처럼 배를 잘 몰게 하소서
 아이는 아무 일 없이 낚시 바늘 두드리고
 아내는 한가히 앉아 그물 엮게 하소서.
 陸龜蒙의 차밭에는 풍년이 들게 하고
 張翰의 가을 순채와 농어를 얻게 하소서.
 노래를 마치면 다시 노래하노니 배를 짓고 세상과 나를 잊으리라,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큰 것 없으리니 유유히 평생을 마치리라.
 김창흡, <저자도의 새집 상량문(楮島新居上樑文)>(165:542)

김창흡은 자신의 저자도 별서 동쪽에 세 섬이 있다고 하였는데 잠실섬과
 그 곁에 붙어 있던 모래톱을 이르는 듯하다. 또 서쪽에 봉은사가 있다고 하
 였고 다른 시에서도 “절간은 서북으로 숨어 있고, 모래톱은 동남으로 뻗어

있네(招提西北隱 沙渚東南綿)”라 하였으니³⁴⁾ 저자도가 <경성도>의 무동도로 보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그런데 자신의 별서 남쪽에 있다고 한 玄城이라 부른 곳이 어딘지 궁금하다. 봉은사가 서북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니 봉은사 동남쪽에 그의 별서가 있었고 그 남쪽에 현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백석성이 흰 바위로 된 석성을 지칭한 것으로 보아 현성은 검은 흙으로 된 토성인 듯하다. 원래 산단에 있던 흰 바위가 허물어져 없어지고 토성만 남아 있었기에 이렇게 이른 듯하다.

김창흡은 1686년부터 1688년까지 3년 동안 저자도에서 살았다. 그 동안 저자도를 배경으로 <楸島漫詠>, <玄城漫詠>, <玄城雜詠> 등 수많은 연작시를 제작하여, 우리 문학사에서 저자도를 가장 많이 시로 남긴 작가가 되었다. 그 중 몇 수를 아래에 보인다.

오래된 성엔 흰 돌이 흰하고
 새로 된 성엔 흰 구름에 떠 있네.
 백제는 하마 아득히 보이지 않는데
 남한산성은 아직 부끄러움 많도오.
 오직 푸른 강물만 흘러
 밤낮 서쪽으로 가는구나.
 지사가 물새와 어울려
 유유히 노년을 보내고 있다네.
 古城白石爛 新城白雲浮 百濟旣莽蕩 南漢尙餘羞
 惟有碧流水 日夕向西流 志士混鷗鷺 悠悠將白頭
 김창흡, <현성잡영(玄城雜詠)>(165:57)

삼성동 토성을 가리키는 백제의 오래된 성은 아직 흰 바위가 남아 있는데, 새로 쌓은 남한산성은 높다랗게 보인다. 여기서 이른 지사는 저자도에 살던 許格을 가리킨다. 젊은 김창흡은 허격이 산수에 소일하는 것을 보고

34) 김창흡, <玄城雜詠>(165:57).

자신도 그러한 뜻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한양의 집을 처분하고 배를 구입하여 은자로 살 뜻을 품었다.

저 한양의 집을 팔고
 물가의 배를 구입하였네.
 마음이 달인에 가까워지니
 이 땅이 더욱 유연하구나.
 벗을 부르니 온통 나무꾼과 어부요
 책을 보는 이 반나마 늙은 중이라.
 가을바람 그저 싸하고 불어오니
 내 나이 잊은들 어찌랴
 賣彼長安宅 買來苕雪船 爲心近達者 茲地益悠然
 喚友渾樵釣 看書半老禪 秋風徒淅淅 無奈我忘年
 김창흡, <현성만영(玄城漫詠)>(165:78)

菴水와 雪水에 배를 타고 유유자적한 당나라 때의 은자 張志和의 삶에 스스로를 비꼴다. 나무꾼과 어부, 그리고 승려들과 어울려 한가한 삶을 살 고자 하였다.

큰 아이 책을 읽는 난간에
 강물이 쿵쿵 흘러오네.
 봄 물결 물고기 뛰는 소리가
 흥중의 졸렬함을 부수어주네.
 大兒讀書軒 江水來活活 春波躍魚聲 打破胸中拙
 김창흡, <저자도의 춘첩자(楮島春帖)>(165:70)

1688년 저자도의 별서에 붙인 춘첩자다. 아이가 책을 읽는데 그 난간 너머로 한강물이 휘감아 흐른다.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소리가 세상의 번뇌를 모두 씻어준다.

김창흡이 저자도에 집을 정하고 산 것은 3년 남짓이지만 여행을 좋아한

그였기에 그 사이 여러 곳을 여행하였을 것이니 저자도의 별서에 머문 시간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창흡은 저자도를 배경으로 수많은 시를 제작하였다. 또 金昌協, 金昌業, 金昌緝 등의 형제, 같은 집안의 벗 金時保, 여향의 시인 洪世泰 등 이름난 문인들 역시 그의 별서를 자주 찾아 시를 지음으로써 저자도는 한시의 산실이 되었다.

그러나 김창흡은 저자도에서 은자로 살고 싶었지만 1689년 己巳換局으로 정국이 바뀌자 부친 김수흥이 珍島에 안치되었다가 賜死되었으니 한가히 저자도에서 어부와 나무꾼으로 지낼 수 없었다. 김창흡은 부친의 삼년상을 치른 후 永平의 白雲山 아래로 이주하였으니, 도성에서 더욱 멀리 떨어진 곳으로 숨어든 것이다. 저자도와의 인연은 이로써 끝이 났다.

5. 楸子島의 後事

김창흡이 저자도를 떠난 후 李世白(1635-1703)이 저자도로 들어왔다. 이세백은 본관이 용인이고 자가 仲庚, 호는 靄沙 혹은 北溪라 하였다. 이세백의 모친이 金光燦의 딸이므로, 김수항이 그의 외숙이다. 1689년 도승지가 되었지만 宋時烈을 유배하라는 왕명을 받들지 않아 파직되었고 얼마 후 외숙 김수항이 사사되자 高陽 元堂의 시골집으로 돌아가 지내다가 1690년 2월 저자도로 이주하여 靄沙精舍를 짓고 靄沙를 호로 삼았다. 저자도에 祈雨祭를 지내던 제단이 있었기에 기우제를 뜻하는 靄에다, 韓宗愈가 저자도에서 지은 시 “쇠솥에서 국을 조리하던 솥씨를 가지고, 다시 낚싯대 잡고 느지막이 모래섬으로 내려가네(直將金鼎調羹手 還把漁竿下晚沙)”라 한 구절에서 沙를 따서 靄沙라는 호를 만든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이세백은 한중유의 시 구절에서만 딴 晚沙라는 호도 사용하였다.³⁵⁾

이세백이 외사촌 김창흡에게 보낸 편지에 이세백이 저자도로 들어오게 된 사연이 자세하다.³⁶⁾ 이에 따르면 원래 이세백이 저자도에 오래 살 뜻이

35) 송상기, <訪靄沙李兄世白於楸島留別>(171:249)에서 “晚沙卽李兄亭號”라고 하였다.

36) 이세백, <與金子益>(146:539).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선 한두 해 보내려고 하니 집과 논밭이 있어야 하겠기에 김창흡에게 그의 집을 팔 수 있는지 물었다. 저자도에 다른 집이 나온 것이 있는데 땅이 넓고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어 좋기는 하지만 집이 너무 좁은데다 바로 구매할 돈도 없었다. 이에 김창흡이 집을 내어놓았다는 소문을 듣고 집이 팔리지 않았으면 값을 빨리 알려 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마음 같아서는 멀고 깊은 곳으로 가고 싶지만 저자도가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외져서 백세를 바라보는 부친을 모시고 살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부탁하였다.

이세백이 김창흡의 별서를 구입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1690년 2월 저자도로 들어와 산 것은 분명하다. 그 아들 李宜顯(1669-1745) 역시 부친을 모시고 함께 저자도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를 회고한 글에 따르면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였고 시도 수천 수를 지었다고 한다. 이세백은 3년 남짓 저자도에서 살다가 양주의 金村, 지금의 남양주시 삼패동 부근 선영이 있던 곳으로 집을 옮겼다. 1693년 저자도에 있으면서 금촌에 北溪亭을 짓고 김창협에게 기문을 부탁하였으니 이즈음 저자도의 별서를 정리한 듯하다. 이세백이 저자도에서 집을 정하고 지은 시는 한 수 정도가 확인된다.

새집을 빌려 어제 돌아오니
 온 봄날 비바람에 작은 정자 출구나.
 인간세상 소식이 어찌 이르랴
 끝없는 강물만 끊어진 산을 감싸 돌 뿐.

借得新居昨日還 一春風雨小亭寒
 人間消息那由到 無限江流繞斷山

이세백, <새로 저자도에 지은 집에서 안부를 묻고 회포를 적은 시에 차운하다(新寓楮島, 次寒暄書懷韻)>(146:400)

이세백이 다른 사람의 집을 임시로 빌려 살게 되었지만 인간세상 시비가 들리지 않아 다행이라 하였다. 이세백이 저자도로 물러나자 宋相琦 등의 벗들이 찾아와 위로하고 시를 수창하였지만,³⁷⁾ 이세백의 저자도 별서는 곧바

로 잊혀졌다. 그의 아들 이의현도 저자도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이세백이 떠난 후 李善溥(1646-1721)의 별서가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되었다. 이선부는 본관이 德水로 李觀夏의 아들이며 모친은 우의정을 지낸 李行遠의 딸이다. 자가 季泉이고 호는 六松이라 하였는데 벼슬은 경기감사와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집이 저자도에 있었는데 인근 鶴灘에 살던 趙泰億이 자주 그의 집을 찾았다. 조태억은 1716년 무렵 李東旆, 黃爾章, 洪禹行 등과 어울려 시회를 자주 가졌는데 바로 인근에 있던 학여울 자신의 별서나 이선부의 별서가 자주 이용되었으며 저자도에 살아 호를 楸湖라 한 金啓煥도 이들의 시회에 자주 참석하였다.³⁸⁾ 그러나 조태억의 글에 이때의 상황이 보이지만 이선부나 김계환의 별서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崔奎瑞(1650-1735)도 저자도와 인연이 있어 1714년부터 얼마간 머문 적이 있지만³⁹⁾ 그 역시 저자도와 관련한 아름다운 글을 남기지 않았다. 결국 조선 후기 저자도는 김창흡의 상징이 되었다. 훗날 저자도 인근을 지나던 문인들은 김창흡의 옛집을 찾곤 하였다.

삼연 선생 남긴 시를 찾아 모래톱을 방문하니
 눈길 끝난 곳 푸른 물결엔 향초가 시름겹다.
 구름 덮인 물가를 배회하니 흰 달이 떠오르는데
 적막히 드넓은 냇시터에 빈 배가 묶여 있구나.
 물새와 물고기의 묘한 이치가 아직 남아 있는데
 강물처럼 도도한 글은 찬란하여 거두지 못하겠네.
 슬프다, 홀로 황량한 집터를 찾노라니
 귀족들의 풍악소리 높은 누각에 풍성하네.
 淵翁逸韻問滄洲 極目春波蘭杜愁
 雲渚徘徊來素月 釣磯寥濶繫虛舟

37) 송상기, <訪雲沙李兄世白於楸島留別>(171:249).

38) 조태억, <楸子島李尙書季泉丈寓舍, 與金晦叔晦而金明仲韻>(189:185) ; <李參議春卿, 黃掌令子燾爾章, 洪正言聖能, 乘舟到楸島李尙書寓舍, 與金明仲, 爲一宵話, 翌曉飛書速余, 余馳往則責余後至, 詩以謝之>(189:188) ; <楸湖小集, 李尙書呼韻促賦, 走筆三首, 時李諫議世勉, 李監司聖望兩丈有約, 不果至>(189:202).

39) 최규서, <病後漫錄>(161:258).

禽魚理妙間多在 江漢文章爛不收
惆悵獨尋荒草址 貴遊歌舞足高樓

오원, <현성에서 삼연 선생의 유지를 찾아가다 느낌을 적다(玄城訪三淵先生遺址, 志感)>(218:367)

吳琰이 1735년 저자도에 있던 김창흡의 별서를 찾아 지은 작품이다. 오원은 생부가 吳晉周인데 모친이 김창협(金昌協)의 딸이니 김창흡이 오원에게는 작은 외조부다. 김창흡이 물가에 살면서 물고기와 물새를 보고 자연의 이치를 터득한 일과 저자도를 배경으로 지은 작품을 칭송하였다.

복사꽃 뜬 강물에 돛을 풀어
저자도 마을에 배를 멈추었네.
들판의 집엔 왔다갔다 글을 남기고
절간에선 승려를 마주하여 말을 나눈다.
고운 햇살이 강물을 덮어 반짝이는데
음산한 봄기운은 절을 가득 덮었네.
바람과 물결이 흥을 다 재촉하니
홀연 내 사립문으로 발길을 돌려야겠네.

張帆桃花水 停舟楮子村 野堂題鳳罷 禪院對僧言
晴景籠湖麗 春陰護寺繁 風潮催興盡 忽與返柴門

조유수, <저자도에서 삼연 김창흡의 빈 집을 지나 봉은사로 승려를 찾아가다(楮島過金三淵昌翁空宅, 尋僧奉恩)>(b55:8)

강 북쪽 응봉 기슭에 살던 趙裕壽가 1749년 무렵 저자도를 지나면서 지은 작품이다. 아무도 없는 김창흡의 집에 들러 시를 지어 자신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적었다. 썸의 呂安이 嵇康을 찾아갔는데 그가 외출하여 만나지 못하자 ‘鳳’이라는 글자를 써 놓고 그냥 갔다. 김창흡과 같은 위대한 시인을 만나지 못하였음 ‘題鳳在門’의 고사를 통하여 말하였다. 김창흡은 鳳이지만, 자신은 이를 파자한 ‘凡鳥’라고 한 말이기도 하다.

이후 저자도의 문화사는 초라하다. 지나던 詩人 墨客이 잠시 들러 시를 짓기는 하였지만 김창흡 이후 저자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저자도를 글로 빛낸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근대에 들어 저자도의 위치까지 혼란스러워졌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대부분의 문헌에 보이는 저자도는 오늘날 삼성동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김창흡을 위시한 많은 사람의 글에는 저자도에 무동암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무동도가 저자도와 혼용된 듯도 하다. 김창흡은 무동도를 舞島라고 부르면서 시에 자주 소개한 바 있는데 무도는 모두 저자도를 가리킨다.

南鶴鳴도 1687년 인근을 지나다 쓴 글에서 “끊어진 언덕이 물가에 임해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 땅이 남쪽을 면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작은 산 하나가 있어 흡사 살 만한 모래톱인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무동도다. 오른쪽에 소나무와 전나무가 울창한 숲이 휘돌아 감싸고 있는데 이것이 봉은사의 동쪽 기슭이다. 왼편으로 평야가 과랴게 펼쳐져 있고 마을의 연기가 흩어지는 곳은 麻田浦의 新川이다.”라 하였다.⁴⁰⁾ 여기서도 무동도가 봉은사와 신천 사이에 있다고 하였으니⁴¹⁾ 무동도는 저자도를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또 18세기 후반 尹行恂의 글에는 “靖陵의 楸島”라 하고 “저도는 鶴灘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였으니⁴²⁾ 저자도, 혹은 저도는 삼성동에 있었던 섬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다가 18세기 무렵에는 무동도가 저자도와 구분되어 기록에 나타나는데 이때의 저자도는 삼성동에 있던 섬이지만 무동도는 잠실섬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뀐다. 金相定이 1744년 응봉 기슭에서 배를 타고 동호 일대를 유람하면서 쓴 글에는 저자도와 舞童島, 楸島를 三島라 부른다고 하

40) 남학명, <冷節遊歷記>(b51:316).

41) 黃胤錫의 <憶昔>(246:85)에서 “自漢上沿江赴京城, 舟至舞童島東, 秋水向落, 圜沙不得行, 天已昏矣, 乃步投陵中奉恩寺”라 하였다. 여기서 황윤석은 1777년 무동도의 동쪽에 배로 도착하였는데 가을이라 물이 빠져 갈 수가 없고 날이 저물어 부득이 걸어서 언덕 위의 봉은사로 가서 투숙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이른 무동도 역시 저자도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조태억은 <李尙書子始自坡山寓舍, 聞有請竄之啓, 爲近京待命, 移住於舞童島, 距我灘舍不五里而近, 雨中與趾兒乘小艇往訪, 舟中與兒聯句, 示李尙書要和>(189:323)에서 李肇(1666-1726)가 舞童島에 살았다고 하였는데 무동도가 잠실인지 저자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42) 윤행임, <鶴灘奇遊軸序>(287:187).

였고 무동도만 강 가운데 있는데 구불구불한 모래톱이라 하였으며 무동도와 저자도 사이에서 배를 돌려 왔다고 하였다.⁴³⁾ 또 李頤淳이 1803년 무렵 지은 글에서 “大峙村 앞 環米島에서 배를 타고 작은 여울을 거슬러 올라가 三田渡에 이르러 큰 강을 따라 내려가 鶴灘을 지나 白鷗洲의 벼랑 바위틈에 배를 묶어 두었다가 다시 무동도와 저자도를 따라 빙 돌아서 물이 고인 곳에 배를 대고 동쪽 동구로 들어갔다.”고 하였다.⁴⁴⁾ 이러한 기록을 보면 최소한 19세기 초반까지 저자도는 오늘날 삼성동 봉은사 서쪽에 있었던 섬을 지칭하였고 무동도는 잠실섬을 가리켰던 것임이 분명하다.



[海東地圖의 廣州府 : 18세기 제작된 것으로, 양재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 저자도가 있고 탄천이 합류하는 한강 가운데 커다란 무동도가 있으며 그 동쪽에 부래도가 있다.]

43) 김상정, <鷗湖記遊序>(b85:9).

44) 이이순, <泛舟於大峙村前環米島, 泝小灘而上, 至三田渡, 由大川順流, 過鶴灘, 繫舟於白鷗洲崖石間, 已而沿回舞童島楮子島, 水滌處下舟, 入東洞口>(269:99). 白鷗洲가 잠실의 서쪽에 있던 모래톱 혹은 잠실섬 자체인 듯하고 環米島는 그 남쪽 대치동 쪽에 있던 섬으로 추정된다.

또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輿志圖書』에는 광주의 彦州面에 舞童島里, 扶老島里, 楸子島里 등이 보이므로 저자도 역시 양주가 아닌 광주 땅이었다. 그 중 저자도리에는 7호에 남자 10명과 여자 11명이 살고 무동도리에는 23호에 남자 33명과 여자 46명이 거주하며 부로도리에는 45호에 남자 62명 여자 111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무동도와 부로도는 비교적 크고, 저자도는 조그마한 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김창흡은 30호가 있다고 하였는데 7호로 줄었으니 가구뿐만 아니라 섬 자체도 많이 작아진 것 같다.

조선 후기 지도에서도 저자도와 무동도 등이 보인다. 『해동지도』에는 오늘날 삼성동 쪽에 저자도가 있고 그 서쪽에 무동도와 浮來島가 보이고 『광여도』에는 저자도 서쪽에 무동도는 보이지 않고 부래도만 보인다. 이를 보면 무동도를 합쳐 부래도라고도 불렀고, 역으로 부래도까지 포함하여 무동도라고도 불렀으며 이 전체가 바로 잠실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사전에는 오늘날 잠실이 浮里島, 혹은 浮來島라 하던 섬과 잠실실이 모래톱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합쳐진 것이라 한다. 이를 보건대 무동도는 잠실섬이고 저자도는 그 서쪽에 있었다고 하겠다.⁴⁵⁾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저자도가 증랑천이 한강과 만나는 두모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게 된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 19세기 중반 金正浩의 『大東輿地圖』에는 저자도가 잠실섬처럼 그려져 있고, 이보다 좀 더 자세한 『東輿圖』에는 저자도가 독섬 남쪽에 그려져 있으며 잠실 쪽은 桑林이라는 섬으로 되어 있다. 저자도의 위치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이 즈음부터인 듯하다. 19세기 중반 무렵 원래의 저자도는 육지가 되었고, 독섬 인근에 새로 형성된 섬이 저자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듯하다.

45) 『황성신문』에 1902년 이 섬을 소유하고 있던 英親王宮에서 무동도에 뽕나무 45,000 그루를 심고 水輪院 公桑課에서도 30,000여 그루를 심었다고 하며 1907년에는 農商工部에서 무동도에 蠶業試驗處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므로, 이 정도면 무동도가 예전 섬이었던 시절의 잠실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6. 결론

저자도는 고려 말 韓宗愈의 별서가 있어 한 시대의 故事가 되었다. 또 조선 초기 세종이 貞懿公主에게 이 섬을 하사하면서 저자도는 그림으로도 그려졌으며 많은 문인들이 다투어 시를 지은 바 있다. 이후 많은 문인들이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하였다. 16세기에는 崔慶昌, 白光勳 등 최고의 시인들이 이웃한 奉恩寺를 오가면서 수많은 시를 지었다. 특히 17세기를 전후한 시기 具容과 許淮 등의 별서가 있어 李安訥, 權鐸 등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들에 의하여 저자도는 문학의 산실이 되었다. 이를 이어 걸출한 시인 金昌翁과 節義로 이른 許格이 이곳에 별서를 두면서 저자도는 한강의 가장 이름난 명소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문화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공간인 저자도의 위치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다. 여러 연구서와 사진 등에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 생성된 모래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섬이 강남 개발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문화사에 등장하는 저자도는 오늘날 삼성동에 있었고 그곳에 무동암이라는 바위가 있어 17세기 무렵까지는 舞童島라고도 불렀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못하였다. 18세기 무렵 저자도는 무동도와 분리되어 인식되었으며 이때의 무동도는 잠실섬의 일부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부터 저자도는 뚝섬 앞쪽의 섬으로 기록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초반에는 삼성동에 있던 원래의 저자도를 두고 무동도라 일컫는 혼선이 생겼다. 이 글은 이렇게 왜곡된 저자도의 역사를 바로잡은 것이 가장 큰 성과로 자부한다.

참고문헌

- 姜樸, 『菊圃集』, 『韓國文集叢刊』 속70집.
 姜希孟, 『私淑齋集』, 『韓國文集叢刊』 12집.
 具容, 『竹窓遺稿』, 『韓國文集叢刊』 속16집.
 權譚, 『石洲集』, 『韓國文集叢刊』, 75집.
 金相定, 『石堂遺稿』, 『韓國文集叢刊』 속85집.
 金邁淳, 『臺山集』, 『韓國文集叢刊』 294집.
 金尙憲, 『淸陰集』, 『韓國文集叢刊』 77집.
 金鍾厚, 『本庵集』, 『韓國文集叢刊』 237~238집.
 金昌翁, 『三淵集』, 『韓國文集叢刊』 165~167집.
 南鶴鳴, 『晦隱集』, 『韓國文集叢刊』 속51집.
 朴瀾, 『汾西集』, 『韓國文集叢刊』 속25집.
 朴世采, 『南溪集』, 『韓國文集叢刊』 138~142집.
 宋相琦, 『玉吾齋集』, 『韓國文集叢刊』 171집.
 安鼎福, 『順菴集』, 『韓國文集叢刊』 229~230집.
 吳瑗, 『月谷集』, 『韓國文集叢刊』 218집.
 尹新之, 『玄洲集』, 『韓國文集叢刊』 속20집.
 尹行恁, 『碩齋稿』, 『韓國文集叢刊』 287~288집.
 李德懋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257~259집.
 李德懋, 『아정유고』 (고전번역원 DB)
 李璫, 『景玉遺集』, 규장각 소장본.
 李世白, 『雫沙集』, 『韓國文集叢刊』 146집.
 李植, 『澤堂集』, 『韓國文集叢刊』 88집.
 李頤淳, 『後溪集』, 『韓國文集叢刊』 269집
 이행 등,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전번역원 DB).
 趙裕壽, 『后溪集』, 『韓國文集叢刊』 속55집.
 趙泰億, 『謙齋集』, 『韓國文集叢刊』 189~190집.
 崔奎瑞, 『艮齋集』, 『韓國文集叢刊』 161집.
 許穆, 『記言』, 『韓國文集叢刊』 98~99집.
 허균, 『성소부부고』 (고전번역원 DB)
 윤진영 외, 『한강의 섬』, 마티, 2009.

A Cultural History about JeoJa-Island during Late Choson Period

Lee, Jongmuk

JeoJaDo (JeoJa-Island) is known for some songs or poems written by literatis. Besides, it is famous that best poets including Choi Kyong Chang and Baek Kwang Hoon wrote plenty of poems about JeoJa-Do as they often visited BongEunsa (Bong Eun Temple) which is just near JeoJa - Do in 16th century. Especially in 17th century, poets including Koo Yong and Heo Hwae had their beautiful villas there so that lots of poets including Lee An Nool and Kwon Pil enjoyed visiting there. Later, Kim Chang Hup and Heo Gyuk had villas there and JeoJa - Do became one of the famous attraction in vicinity of HanGang (Han River).

By the way, MoRaeTop where JungRangChon (JungRang River) and Han - Gang meet is described as the location of Jeo Ja - Do in some studies and dictionaries. Until 17th century, Jeo Ja - Do was located in Sam Sung Dong and known as Moo Dong - Do (Moo Dong - Island) since there was a rock called Moo Dong - Do (Moo Dong - Rock) according to literature written in Cho Sun dynasty. Around 18th century, people recognized Jeo Ja - Do and Moo Dong - Do as difference places, considering Mu Dong - Do as some part of Jam Sil. Then, a map that showed Jeo Ja - Do located in front of Ddook island appeared in 19th century and that was similar to how people in modern times think where Jeo Ja - Do is. In early 20th century, Mu Dong - Do referred to the area where Jeo Ja - Do in Sam Sung Dong was located in prior period.

Keywords: Jeojado, Mudongdo, Koo Yong, Kim Chang Hyup, Heo Gyuk

접수일자: 2014. 9. 30.
 심사기간: 2014. 10. 1.~2014. 11. 10.
 게재결정: 2014. 11. 10.